**도버해협 유로터널 火災**

**Ⅰ. 火災發生 現況**

**1. 發火 日時** : 1996. 11. 18. 21:00

**2. 鎭火 日時 :** 1996. 11. 19. 06:00

**3. 發火 場所 :** 프랑스와 영국사이 도버해협 지하터널

**4. 發火 原因 :** 원인미상 (방화추정)

열차는 그날 규모 감축 계획발표에 대항하여 유로터널 직원들이 주동으로 와일드 스트라이크(노조의 승인 없이 하는 비합법적인 노동쟁의)가 발생한 Calais를 향해 2시간 동안 달렸으며 프랑스쪽 입구로부터 안전요원은 영국으로의 장시간 운행이 시작되는 그때 열차의 바닥의 적재트럭에서 연기가 보인다고 보고함

화재조사원은 와일드 스트라이크 동안 프랑스 운동요원이 던진 불꽃이 폴리스킬렌 운반차량 적재 칸에서 연소 확대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적재 칸 내부가 아니라 아래쪽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5. 被害現況**

가. 소실내용

○ 부동산 : 800여미터의 터널

○ 동 산 : 터널에 설치된 수관, 공기관, 신호기, 레일 등

나. 인명피해 : 부상 34명

**6. 動員 人員**

․ 인 원 : 200여명 (영국소방관 100여명, 프랑스소방관 100여명)

**Ⅱ. 問題點**

○ 2명의 안전요원이 열차화재를 발견했는데도 터널로 진입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음

○ 켄트소방대는 화재발생 1시간이 지나도록 경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유로터널은 그들의 반대쪽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9시간동안 화재가 진행된 점으로 볼 때, 초기대응 사항이 불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줌

○ 객실부분의 환기장치가 부적절했고, 공기호흡기가 비치되지 않아 승객들이 유독 연기의 피해를 입음

○ 여객운송차 처럼 객실차가 아니고 트럭운송열차는 격자형 개방구조로 되어 있어 터널을 통과할 때 불꽃이 바람에 날리도록 하였으며 영국 소방대 간부 Mike Fordham가 비유한 이 횃불디자인을 객실차로 바꾸는 데 약 200만 달러(US$)가 소요될 것임